

“해외 채권·美 공모주 청약, 변동성 주의 필요”

금감원 Q&A

가상자산사업자 사칭 금전편취 사기 성행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유의사항
금감원 “국내 증권사 관여 안 해
환율 변동에 환차손 볼 수 있어”

송모씨는 국내 A증권사를 통해 청약대금 상당액을 미국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증시의 공모주식을 청약했으나 1주도 배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해당 공모주는 IPO 이후 가격이 3영업일 만에 40% 이상 상승했다. 송씨는 이후 청약대금이 환불되는 과정에서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 환차손을 감수해야 했다. 투자기회도 못잡고 환차손만 입은 송씨는 국내 증권사의 업무처리의 적정성 확인 및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25일 “개인투자자들의 금융투자 대상이 글로벌 자산으로 확대되면서 해외 채권투자, 미국 공모주 청약 관련 투자위험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해외 공모주 청약에 대해 주식 배정 기준이 다르고 환차손이 발생하는 등 국내 투자환경과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송씨 사례와 관련,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가 제공하는 해외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는 단순 중개 서비스로 공모주 배정 방식이 현지 중개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르고 국내 증권사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해외 공모주는 상장 직후 가격 변동성이 크고 환율 변동 위험에도 노

출돼 주의가 필요하다”며 외화증권 투자시 증권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 외에도,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은 ‘외화채권’에 투자할 때 환율·금리 변동 등과 관련한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한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증권회사에서 연 10% 수준의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투

자 권유를 듣고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던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민원인은 “브라질 통화인 헤알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원화 환산 이자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투자 시점에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외화채권 투자는 환율 및 금리 변동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돼 거시경제지표의 움직임에 따라 투자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투자대상 해외 국가의 통화와 미국 달러, 원화와 미국 달러간 환율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이익 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시장 금리의 움직임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권 대출을 연장하거나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론과 대부업체 대출 등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부채규모가 증가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는 점을 소비자들이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Q. 최근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사기에 조심해야 하나요?
A.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하는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업자들은 장기미접속 휴먼계좌의 가상자산이 영업종료 등으로 소각될 예정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출금하라는 내용의 불법스팸을 대규모로 발송합니다.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실존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글로벌 거래소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SNS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을 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바람잡이들은 ‘출금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눕니다.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의 가상자산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화면을 제공해 현혹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런 형태의 사기에 유의하려면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사업자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밸류업·금리인하’ 등 겹호재… 증권株, 강세 이어질 듯

2분기 호실적 기록… 긍정적 영향
10개 증권사 순이익 전년비 22%↑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에도 적극
2분기 호실적 등으로 강세를 보인 증권주가 밸류업과 9월 금리 인하 등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증권지수가 지난 5일 폭락장 이후 16%가량 상승해 KRX 은행(15%), KRX 보험(14%) 등 다른 금융업종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종목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25%가량 오르며 가장 크게 상승했다. 이어 삼성증권(18%), 키움증권(15%), NH투자증권(9%) 등이 뒤를 이

었다.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점이 증권주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올해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의 순이익은 3조68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에 나서면서 높아진 밸류업 기대감도 주가 강세를 이끌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2일 단기적으로 2024~2026년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을 달성하고, 주주환원성장 35% 이상을 이행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주는 증권업 최초로 매년 최소 보통주 1500만주, 우선주 100만주 이상 소각하기로 했다.

키움증권도 지난 14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35만주를 신규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11월 15일까지 장내에서 35만주(445억9000만원어치)를 취득하고, 기보유 자사주 70만주와 함께 내년 3월 중 소각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삼성증권이 11월 이후에 밸류업 공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증권사들은 향후 더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증권주는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이슈가 해소되는 가운데 실적 개선과 밸류업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했다. 이어 “대부분 현금배당과 자사주 취득을 병행하고 있어 하반기에 추가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한다면 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 인하가 9월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주의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가 인하되면 증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주식 거래대금이 증가한다. 또한 기업금융(I/B) 영업 재개에 따른 수익 증가와 채권 평가 손익 개선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정태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를 거듭한다면 시장금리는 더욱 크게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자산운용사, 올해 2분기 영업실적 1612兆 기록

올해 6월말 기준 자산운용사들의 운용자산이 16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채권형 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등이 크게 증가했으며, 적자 회사도 줄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직전 분기와 비교해 2.8%(43조 9000억원) 늘어난 1612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2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 48.1%(1878억원) 증가해 578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10.2%(428억원) 증가한 4642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펀드수탁고는 1008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 펀드 유형별로는 공모펀드가 389조 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14조 6000억원), 사모펀드는 618조 4000억원으로 같은 시점 대비 2.8%(17조원) 증가했다. 공모펀드는 채권형이 6조 4000억원 증가했고, 사모펀드는 혼합자산이 3조 7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전체 자산운용사 471개 회사 중 적자 회사 비율은 43.5%로, 직전 분기 대비 0.3%포인트(p) 감소했다. 자산운용사 266개 회사가 흑자를 기록했고, 205개 회사는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허정윤 기자

폐암 치료 신약 ‘렉라자’, 美 FDA 시판 승인… 최고가 경신

metro 관심종목 유한양행

이번 주에만 주가 11.97% 올라
국산 항암제 FDA 허가 첫 사례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 신약인 ‘렉라자’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시판 승인을 받으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시장 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주가는 이번 주에만 11.97% 상승했다. 특히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23일에는 전 거래일보다 10.81%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더불어 유

한양행 우선주도 지난주보다 41.44% 상승하면서 최고가를 썼다. 앞서 20일 유한양행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와 미국 존슨앤드존슨(J&J)의 자회사인 안센의 표적 항암제 ‘리브리반트’를 함께 투약하는 병용 요법이 FDA에서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승인받았다고 알렸다. 국산 항암제가 FDA 허가를 받은 사례는 이번이 최초이다. 폐암은 암세포 크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으로 구분한다. 전체 폐암의 80~85%가 비소세포폐암이며, EGFR 유전자 변이도 비소세포폐암에서 흔히 관찰된다. 이 가운데 유한양행은 3세대 EGFR 티로신 인산화효소 억제제(TK I)인 ‘렉라자’를 개발한 것이다. 유한양행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면

서 증권사들은 렉라자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등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하나증권은 승인 확률을 고려해 제시했던 기존 렉라자의 파이프라인 가치 2조 5000억원을 2조 6500억원으로 올려잡았다. 이와 함께 목표주가 역시 기존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향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렉라자의 시장 침투와 그에 따른 매출이고, 이를 위해서는 약가,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의 등재, 생존율(OS) 데이터 등이 중요하다”며 “약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렉라자에 어떤 약가를 적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리브리반트의 약가는 2mg 기준 도매가(WAC) 20.8달러, 평균판매가(ASP) 19.4달러로, 용법 용량



렉라자정80mg. /유한양행

을 반영한 1년 약가는 약 30만달러 수준이다. 이외에도 증권사들은 지난달부터 유한양행의 목표주가를 줄상향했다. 제시된 목표주가는 ▲키움증권(12만원) ▲대신증권(13만4000원) ▲상상인증권(12만원) ▲다올투자증권(12만원) 등으로 10%대 급등한 현재 주가 10만 6600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유한양행의 목표주가를 총 3번이나 상향 조정하기도 했으며 최종적으로 11만 6000원을 예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